

‘校’의 의미론: ‘나무 울타리’에서 ‘문헌의 考訂’까지

김 효 신**

〈目次〉

- | | |
|------------------------|--------------|
| I. 서론 | IV. ‘校’의 假借義 |
| II. ‘校’의 本義와 引伸義 | V. 결론 |
| III. 《說文解字》 ‘校’ 訓釋의 校勘 | |

I. 서론

역대로 “문헌의 글자나 구절을 바로 잡는다”는 의미를 ‘校’로 표현하였다. 또한 ‘校讎’·‘校勘’·‘校書’·‘校訂’·‘校讀’ 등 여러 합성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校’가 왜 그러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이 논문의 목적은 ‘校’가 어떻게 ‘문헌의 考訂’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校’의 의미를 다양한 층위와 관점에서 고찰하여, ‘校’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개념의 문자학적·의미론적 근거를 파악하고자 한다.

현대의 대표적인 校勘學 이론서인 程千帆·徐有富의 《校讎廣義·校勘篇》에서는 ‘校’의 本義를 ‘죄수의 목에 채우는 갈[木枷]’로 규정하고, 여기에서 “문헌의 考訂”이라는 의미가 파생하였다고 설명한다. 고대의 형틀인 ‘木枷’는 두 조각으로 구성되는데, 그 두 조각의 크기가 대략 일치해야만 모아서 자물쇠로 잠글 수 있었다. 이 때문에 木枷의 두 조각을 함께 놓고 가늠해

*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박사과정

보는 일이 필수적이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校’가 “서로 맞추어놓고 비교하여 살펴본다[比勘核對]”는 의미가 생겼고, 다시 “서면 자료에 나타난 글자의 異同을 校正한다”는 의미로 引伸하였다는 것이다.¹⁾

이러한 설명은 두 조각이 符合하는 ‘木枷’의 형태를 통해 문헌을 비교하여 考訂하는 행위의 이미지를 선명하게 보여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문자학이나 의미론의 관점에서는 허점이 크다. 우선 일련의 의미 引伸 과정이 그다지 자연스럽지 못 하다. 더욱 큰 문제는 “校는 木枷”라는 근본적인 전제조차 그리 공고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校”의 本義를 자세히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II. ‘校’의 本義와 引伸義

《說文解字》〈木部〉에서 許慎은 “校”를 “木囚”라고 訓釋하였는데,²⁾ ‘木囚’에 대해 段玉裁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囚’는 ‘묶는다’는 뜻으로서, ‘木囚’는 ‘나무를 이용해 엮어맨다’는 뜻이다. 《周易》에 “屨校로 밭을 못 쓰게 하고, 何校로 귀를 못 쓰게 한다”³⁾는 말이 나온다. ‘屨校’는 현재 군대 같은 곳에서 범인을 잡아 나무로 만든 족쇄를 채우는 것과 같고, ‘何校’는 현재 범인의 목에 칼[木枷]을 씌우는 것과 같다. ‘校’는 《說文解字》 箋文의 순서에서 다음의 ‘械·桡’ 등과 나란히 한 줄[伍]에 있어야 할 듯하다.⁴⁾

段玉裁의 설명에 따르자면, ‘校’는 죄인의 목에 채우는 칼이나 손발을

- 1) 程千帆·徐有富, 《校讎廣義: 校勘篇》(濟南: 齊魯書社, 1998), 1쪽 참조.
- 2) 《說文解字》〈木部〉: “校, 木囚也.”
- 3) 《周易》〈噬嗑〉의 爻辭: “初九: 屨校滅趾, 無咎; …… 上九: 何校滅耳, 凶.”
- 4) 段玉裁, 《說文解字注》: “囚, 繫也. 木囚者, 以木羈之也. 《易》曰: ‘屨校滅趾, 何校滅耳.’ 屨校, 若今軍流犯人新到箠木鞵, 何校, 若今犯人帶枷也. 此字似當與下文械杆等篆爲伍矣.”

묶어두는 차꼬·족쇄·수갑과 같은 것이다. 段玉裁는 이러한 해설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說文解字》의 글자 배열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校’는 ‘械’·‘桎’·‘桎’·‘梏’과 같이 고대의 刑具를 나타내는 글자이니, 원래 《說文解字》의 텍스트에서는 이 글자들이 하나의 무리[伍]를 이루었을 것이라 추측하는 것이다. 만약 段玉裁가 옳다면 앞의 程千帆과 徐有富의 설명은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추게 된다.

하지만 段玉裁의 해석이 학계의 일반적인 지지를 받는 것은 아니다. 가령 王筠은 ‘校’의 本義에 대해 段玉裁와는 다소 다른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囚’는 ‘口’가 주요한 의미 성분으로서, 담장을 높게 올려 죄인을 가둔다는 의미이다. ‘木囚’는 나무를 이용하여 담벼락과 같은 것을 세운 것이다. ‘桎’이나 ‘梏’은 그 손발을 에워싸는 것인데,⁵⁾ 구속이라는 상황이 비슷하기 때문에 (‘칼’이나 ‘족쇄’에) ‘校’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이다.⁶⁾

段玉裁는 《說文解字》에서 許慎이 ‘囚’를 “묶다[繫]”의 의미로 해설한 것)을 바탕으로 ‘木囚’를 칼·족쇄·수갑과 같은 것으로 파악하지만, 王筠은 사람을 억류하기 위해 만든 나무 올타리라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 ‘校’는 신체에 직접 채우는 刑具가 아니라 사람을 가두기 위해 나무로 만든 올타리라는 것이다. ‘囚’가 큰 틀[口] 안에 사람[人]이 들어있는 모습(“从人在口中”)이라는 許慎의 訓釋을 고려하면 王筠의 해석 역시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보면 “木枷”에서 “문헌의 考訂”이라는 의미를 유추하는 설명방식은 결국 기본적인 전제부터 흔들리게 된다.

‘校’의 本義가 이렇게 불명확해진 것은 이미 唐代 초기의 문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漢書》에는 司馬相如의 〈上林賦〉를 수록하고 있는데, “그리하여 가을을 등지고 겨울을 건널 때 천자가 校獵을 하였다(於是乎背秋

5) 《說文解字》에서는 ‘桎’은 ‘족쇄[足械]’, ‘梏’은 ‘수갑[囚械]’으로 해설하고 있다.

6) 王筠, 《說文解字句讀》, 〈校〉: “囚從口, 高其牆以關罪人也. 木囚者, 以木作之如牆也. 桎梏皆圍其手足, 情事相似, 故得校名.”

7) 《說文解字》〈囚〉: “繫也. 从人在口中.”

涉冬, 天子校獵)”는 구절이 있다. 이 “校獵”에 대해 李奇는 “다섯 校尉[五校]를 이끌고 사냥에 나선 것”으로 풀이한다.⁸⁾ 하지만 顏師古는 李奇의 해설을 반박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李奇의 설명은 틀렸다. “校獵”이라는 것은 나무를 뚫어 서로 꿰어서 울타리[關校]를 만들어 날짐승 들짐승을 도망가지 못하게 막아놓은 후, 사냥을 하는 것이다. 《周禮》에서 “校人”에 대해 사냥 말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하였는데,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校獵”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한다. 하지만 이 역시 그 올바른 의미를 놓친 것이다. 말을 기르는 사람을 “校人”이라고 한 이유는 울타리[關校]를 쳐놓고 말을 기르기 때문일 따름으로, 그래서 마굿간[閑]이라고도 부르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周禮》에 잘 나와 있으니, 사냥 말[獵馬] 때문에 “校人”이라고 한 것은 아니다.⁹⁾

《上林賦》의 “扈從하고 橫行하여, 四校의 안을 벗어났다”는 구절에 대해서도 文穎은 “원래 步兵·屯騎·長水·越騎·射聲의 다섯 校尉인데, 지금 ‘四校’라고 한 것은 그 중 한 校尉가 天子의 수레를 따라 갔기 때문”¹⁰⁾이라고 설명한다. 顏師古는 이 역시 틀린 설명이라고 비판한다.

文穎의 설명도 옳지 않다. “四校”란 울타리[關校]의 네 측면이다. 방자하게 치달려 울타리의 네 측면 밖으로 뛰어나갔다는 의미이다.¹¹⁾

顏師古는 ‘校’의 本義를 “나무를 뚫어 서로 연결하다[以木相貫穿]”로 訓

8) 班固, 《漢書》卷57上〈司馬相如傳〉李奇注: “以五校兵出獵也.”

9) 班固, 《漢書》卷57上〈司馬相如傳〉顏師古注: “李說非也. 校獵者, 以木相貫穿, 總爲關校, 遮止禽獸而獵取之. 說者或以爲周官校人掌田獵之馬, 因云校獵, 亦失其義. 養馬稱校人者, 謂以爲關校以養馬耳, 故呼爲閑也. 事具周禮, 非以獵馬故稱校人.”

10) 班固, 《漢書》卷57上〈司馬相如傳〉: “扈從橫行, 出乎四校之中.” 文穎注: “凡五校, 今言四者, 一校中隨天子乘輿也.”

11) 班固, 《漢書》卷57上〈司馬相如傳〉顏師古注: “此說又非也. 四校者, 關校之四面也. 言其跋扈縱恣而行, 出於校之四外也.”

釋하며, 李奇와 文穎이 “校獵”과 “四校”의 ‘校’를 “校尉”로 해석한 것을 부정하고 있다. 또한 《周禮》〈夏官司馬〉에 보이는 관직인 “校人”과 “獵馬”를 연결하여 “校獵”을 해석하는 것도 논박한다. 《漢書》〈成帝紀〉元延2년 條에 “겨울에 황제가 長楊宮에 行幸하여 胡客을 따라 크게 校獵하였다”¹²⁾는 기사가 나오는데, 如淳은 이 “校獵”에 대해 이렇게 해설한다.

“校獵”이란 여러 부대를 모아서 편성하여 校旗를 꽂아놓고 북을 치는 것이다. 《周禮》〈校人〉에서 “校人”은 왕이 사냥할 때 타는 말을 관리하는 직책이라고 설명하였는데, 이 때문에 “校獵”이라 부른다.¹³⁾

如淳은 ‘校獵’의 의미를 두 단계로 설명하고 있다. 우선 ‘校旗’를 꽂아 사냥을 위해 편성한 연합 부대를 표시하였는데, 이는 왕의 사냥 말을 관리하는 직책이 바로 “校人”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顏師古는 李奇의 해설과 마찬가지로 如淳의 풀이도 옳지 않다고 판단한다. 설사 軍의 깃발을 나타내는 말 가운데 “校”라는 명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대(部校)에서 기인한 말이지 “校獵”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다.¹⁴⁾

顏師古에 따르면, 사실 部隊를 뜻하는 ‘校’ 역시 “나무로 엮은 울타리”에서 인신된 것이다. 《漢書》〈趙充國辛慶忌傳〉의 “해자와 보루를 구축하고 나무로 망루를 세우니 ‘校’가 끊임없이 이어졌다(爲塹壘木樵, 校聯不絕)”는 구절에 대해 如淳이 “늘어선 校旗가 서로 연결한 모습”으로 해설하자, 顏師古는 ‘校’는 ‘울타리’의 의미로서 “軍營의 보루가 서로 이어진 모습”이라고 정정한다.¹⁵⁾ 이에 대해서 〈衛青霍去病傳〉의 “傳校”를 설명하면

- 12) 班固, 《漢書》卷10 〈成帝記〉: “冬, 行幸長楊宮, 從胡客大校獵.”
 13) 班固, 《漢書》卷10 〈成帝記〉 如淳 注: “合軍聚衆, 有幡校擊鼓也. 《周禮》〈校人〉掌王田獵之馬, 故謂之校獵.”
 14) 班固, 《漢書》卷10 〈成帝記〉 顏師古 注: “如說非也. 此校謂以木自相貫穿爲闌校耳. 〈校人〉職云‘六廐成校’, 是則以遮闌爲義也. 校獵者, 大爲闌校以遮禽獸而獵取也. 軍之幡旗雖有校名, 本因部校, 此無豫也.”
 15) 班固, 《漢書》卷69 〈趙充國辛慶忌傳〉 如淳 注: “播校相連也.” 顏師古 注: “此校謂用木自相貫穿以爲固者, 亦猶《周易》‘荷校滅耳’也. 《周禮》〈校人〉‘掌

서 조금 더 자세히 논하고 있다.

‘校’란 軍營의 보루를 일컫는 말로서, 하나의 부대는 독립적으로 하나의 ‘校’를 구축한다. 어떤 사람은 이를 깃발[幡旗]의 명칭이라 설명하지만 틀렸다. 각각의 부대가 ‘校’를 구축하면 따로따로 깃발을 세울 뿐이니, 그러한 깃발을 ‘校’라고 부르지는 않는다.¹⁶⁾

위와 같이 《漢書》의 注에서 顏師古는 여러 차례 ‘校’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해설을 교정하는데, 이것을 보면 唐代 초기 ‘校’의 본의에 대한 이해가 달라 문헌의 해석이 혼란스러웠다는 점을 알 수 있다. ‘校’에 대한 唐代 이전의 다양한 해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순번	의 미	용 레	출 전
1	칼, 족쇄, 수갑	屨校, 何校 등	《周易》〈噬嗑〉, 段玉裁 《說文解字注》 등
2	軍의 계급	五校, 校尉 등	《漢書》〈司馬相如傳〉 李奇·文穎 注 등
3	軍의 편성단위	校兵, 部校, 校隊 등	《漢書》〈成帝記〉 如淳 注 등
4	군대의 깃발	幡校, 播校 등	《漢書》〈成帝記〉· 〈趙充國辛慶忌傳〉 如淳 注 등
5	마굿간 지기	校人 등	《周禮》〈校人〉, 《漢書》〈成帝記〉 如淳 注 등
6	울타리	闌校, 鐵校, 校獵 등	《漢書》〈成帝記〉, 〈司馬相如傳〉, 〈趙充國辛慶忌傳〉의 顏師古 注

顏師古는 이 가운데 “나무를 서로 엮어 놓다[以木相貫/以木相貫穿/以木

王馬之政, ‘六廄成校’, 蓋用闌械闌養馬也. 《說文解字》云: ‘校, 木囚也’, 亦謂以木相貫, 遮闌禽獸也. 今云‘校聯不絕’, 言營壘相次.”

16) 班固, 《漢書》 卷55 〈衛青霍去病傳〉 “傳校”, 顏師古 注: “校者, 營壘之稱, 故謂軍之一部爲一校. 或曰, 幡旗之名, 非也. 每軍一校, 則別爲幡耳, 不名校也.”

自相貫穿/用木自相貫穿以爲固者]가 가장 근본적인 의미라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하였다. 사실 漢代에는 이러한 ‘校’의 本義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겠지만, 이러한 本義에서 파생된 의미의 용례가 다양하게 확대되면서 唐代에 이르러서는 혼란이 가중되었을 것이다. 후대에는 ‘校’에 대한 《說文解字》의 訓釋인 ‘木囚’를 ‘木缶’·‘木田’·‘木冊’ 등으로 기록하거나 이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校’의 본의를 점점 확정하기 어렵게 된 상황을 반영한다.

그렇지만 ‘校’의 字形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나무[木]를 교차하여 엮은 [交] 울타리”라고 파악한다면 그 本義를 비교적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許慎은 ‘校’에 대해 “木이 의미 성분이고, 交가 소리를 나타낸다”고 설명하지만, 白川靜은 ‘交’가 “交錯”이라는 의미의 요소도 담당하고 있다고 판단한다.¹⁷⁾ 이렇게 보면 “나무를 서로 엮다[以木相貫]”라는 本義에서 파생된 ‘갈·족쇄·차꼬’, ‘군의 계급·편성단위·깃발’, ‘마굿간을 관리하는 관료’, ‘울타리’ 등 여러 가지 引伸義를 비교적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Ⅲ. 《說文解字》 ‘校’ 訓釋의 校勘

‘校’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 한 가지 더 있다. 《說文解字》에서 許慎이 “校, 木囚也”라고 訓釋한 것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고전 문헌 가운데 《說文解字》 이외에 ‘木囚’의 용례를 찾을 수 있는 것은 《論衡》 〈亂龍〉이 거의 유일한데, 이 때 ‘木囚’의 의미는 ‘오동나무로 조각한 죄수의 형상’으로서 ‘校’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¹⁸⁾ 그렇다면 許慎은 왜 顏師古의 “以木相貫”과 같이 명쾌하게 표

17) 白川靜, 《字統》, 〈校〉: “소리 부호는 ‘交’이다. ‘交’에는 交錯의 의미가 있어, 나무를 조합한 물건을 일컫는다(聲符は交, 交に交錯の意があり、木を組み合わせたものをいう).”

18) 王充, 《論衡》, 〈亂龍〉: “李子長爲政, 欲知囚情, 以梧桐爲人, 象囚之形, 繫地爲埒, 以廬爲櫛, 臥木囚其中, 囚罪正, 則木囚不動; 囚寇侵奪, 木囚動出, 不知

현하지 않고 ‘木囚’와 같이 모호한 訓釋을 달았을까? 바로 이 부분이 校勘의 대상으로서 중요한 논란이 된다.

이 문제에 대해 힌트를 제공하는 자료가 徐鍇의 《說文解字繫傳》이다. 통행본인 徐鉉本 《說文解字》와 달리 《說文解字繫傳》(祁雋藻 刻本)에 서는 “校”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校는 “木囚”이며, 木이 의미성분이고 交가 소리를 나타낸다. 나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校라는 것은 나무를 연결한 것이다. …… 《漢書》에서는 “校獵”에 대해 나무를 연결하여 날짐승과 들짐승을 가두는 것이라 하였다. 또 軍의 편성단위로서 “校隊”가 있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이다. (許慎이 말한) “木缶”라는 것은 나무를 장군[缶] 모양으로 만들어 서로 연결한 것이다. 韓信의 군대가 나무 장군[木罍]을 이용해 강을 건넜다는 이야기¹⁹⁾와 비슷한 의미이다.(강조는 인용자)²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木囚”와 “木缶”이다. ‘校’에 대한 許慎의 訓釋에서는 “木囚”라고 쓰고 있는데, 徐鍇가 자신의 견해를 밝힐 때는 “木缶”에 대해 설명하면서 《史記》 “木罍”의 고사까지 인용한다. 이 때문에 《說文解字繫傳》을 교감한 承培元·夏灝·吳永康은 원래 徐鍇가 “木缶”라고 하였는데, 여러 차례 轉寫와 版刻을 거치면서 徐鉉本의 영향을 받아 “木囚”로 잘못 표기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²¹⁾

囚之精神着木人乎? 將精神之氣動木囚也? 夫精神感動木囚, 何爲獨不應從土龍? 囚也.”

19) 司馬遷, 《史記》 卷92 〈淮陰侯列傳〉: “伏兵從夏陽以木罍罈渡軍.”

20) 徐鍇, 《說文解字繫傳》 卷11 〈校〉: “木囚也, 从木交聲. 臣鍇按: 校者, 連木也. …… 《漢書》校獵謂連接木以關禽獸, 又軍中有校隊, 亦是也. 木缶者, 以木爲缶形相連接也. 韓信以木罍渡軍, 義亦相類也.”

21) 承培元·夏灝·吳永康, 《說文解字繫傳校勘記》, 《說文解字繫傳》에 수록. 《說文解字繫傳》은 원래 미완성 필사본으로서 전승되었기 때문에 轉寫와 版刻의 과정에서 많은 오류가 발생한 듯하다. 이에 대해 清代 承培元·夏灝·吳永康이 자세한 校勘記를 작성하였다. 孫振田, 《〈說文解字繫傳校勘記〉撰者訂誤》, 《山東圖書館季刊》, 2006年 4期 참조.

徐鍇의 해설을 살펴보면 “木囚”는 마땅히 “木缶”로 써야한다. “木囚”는 徐鉉本의 영향을 받아 고친 것으로서, 따를 수 없다. 許慎이 만약 “校”를 죄수를 구속하는 기구라고 생각했다면, 당연히 “桎梏”과 함께 배치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楫櫓”와 같이 배치하였으니 분명 徐鍇의 “木缶”라는 설명이 옳다.²²⁾

위의 설명에 따르면, 南唐시기 徐鍇가 底本으로 사용한 《說文解字》에는 許慎의 訓釋이 “校, 木缶也”로 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校’가 물과 관련이 있는 ‘楫’·‘櫓’의 바로 뒷부분에 배치되어 있으니 ‘校’의 訓釋을 “木缶”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파악한다. 段玉裁가 “木囚”를 “木枷”로 해석하기 위해서 글자의 배치를 바꾸려고 했다면, 《說文解字繫傳》의 고감자들은 ‘校’의 訓釋이 “木缶”임을 증명하기 위해 현재의 글자배열을 근거로 제시한다.

그런데 ‘校’에 대한 許慎의 訓釋이 “木囚”와 “木缶”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同治 2년(1863) 莫友芝(1811~1871)가 입수한 《說文解字》의 唐代 필사본에는 “木囚”가 아니라 “木田”이라고 되어있다.²³⁾ 莫友芝는 원래 《仿

22) 承培元·夏灝·吳永康, 《說文解字繫傳校勘記》 卷上: “木囚: 按鍇說, 當作木缶, 因鉉所改也, 不可從. 蓋許若以校爲拘囚器, 則當與桎梏相次. 此與楫櫓相次, 則當以鍇說爲是.”

23) 李宗焜 編著, 《唐寫本〈說文解字〉輯存》(上海: 中西書局, 2015) 46쪽 참조. 《說文解字》 木部 殘卷은 淸 同治 2年(1863)에 莫友芝가 安徽省 黟縣의 縣令 張仁法에게서 얻으면서 세상에 알려진다. 宋 米友仁이 審定하고 劉毓崧이 考定한 唐憲宗 元和 15년(820)의 사본이다. “柎”부터 “楸”까지 188자만 남아 있다. 현재 이 필사본은 日本 武田科學振興財團 杏雨書屋에서 소장하고 있다. 莫友芝는 唐寫本을 얻은 후 曾國藩의 명으로 《唐寫本說文解字木部箋異》 1권을 간행하였다. 앞에는 殘卷의 원문을 모사하여 수록하고, 뒤에는 諸家의 여러 견해와 자신의 의견을 덧붙여놓았다. 발견 당시 唐寫本 《說文解字》의 眞僞 문제에 대해 莫友芝와 曾國藩 등은 진품이라 여겼고, 孫衣言·孫詒讓 부자와 汪宗沂 등은 위조라고 판단했다. 이 중 孫衣言과 汪宗沂는 모두 曾國藩의 참모였기 때문에 표면상으로 이 진위문제를 논쟁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내비치지 않았다. 단지 당시 17세였던 孫詒讓만이 唐寫本 《說文解字》가 위작이라 주장하였다. 孫詒讓(1848~1908) 이래 이 필사본의 眞僞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지만, 최근 학계에서는 대체로 唐代의 寫本으로

唐寫本《說文解字》木部箋異》에서 통행본인 徐鉉本 《說文解字》나 徐鍇의 《說文解字繫傳》(祁嶺藻 刻本)을 따라 “田”을 “囚”로 고쳐야 한다고 교감했다.²⁴⁾

하지만 그 후 《仿唐寫本《說文解字》木部箋異》에 직접 手記로 보충한 識語에서 《說文解字繫傳》〈通釋〉에 따라 唐寫本の ‘田’이 ‘缶’의 誤字일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說文解字繫傳》의 교감자들과 마찬가지로, 현재 《說文解字》의 글자 배치를 고려하면 徐鉉의 訓釋인 “木囚”보다는 徐鍇의 “木缶”가 더욱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²⁵⁾



“校”(唐寫本
《說文解字》)

여기에서 더 나아가 莫友芝는 최종적으로 唐寫本에 나와 있는 “木田”이 ‘校’의 訓釋으로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仿唐寫本《說文解字》木部箋異》를 판단한 후 莫友芝는 특별히 ‘校’에 대한 자신의 변화된 생각을 아들인 莫彝孫에게 서술하였다.

‘校’의 訓釋인 “木田”에 대하여 《仿唐寫本《說文解字》木部箋異》에서는 ‘田’을 誤字라고 여겨, 마땅히 徐鉉과 徐鍇를 따라 ‘囚’로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 자세히 살펴보니 唐寫本이 옳고 徐鉉과 徐鍇가 그르다. 이미 《仿唐寫本《說文解字》木部箋異》의 판각을 마쳐 다시 增訂하기 어려우니 너(莫彝孫)는 내 의견을 책 뒤에 기록하여 바로잡도록 하여라.

내 생각은 이러하다. “木田”의 ‘田’은 《周禮》〈大司馬〉에 보이는 “蒐田·苗田·獮田·狩田”의 ‘田’이다. “木田”은 나

인정하고 있다. 周祖謨, 《唐本說文與說文舊音》, 《問學集》(北京: 中華書局, 1983); 梁光華, 《論莫友芝及其《唐寫本《說文解字》木部箋異》》, 《唐寫本說文解字木部箋異注評》(貴陽: 貴州人民出版社, 1998); 李宗焜, 《唐寫本《說文解字》殘卷研究》, 위의 책, 18~25쪽 참조.

24) 莫友芝, 《仿唐寫本《說文解字》木部箋異》: “‘田’, 當依二徐作‘囚’.”

25) 莫友芝, 《仿唐寫本《說文解字》木部箋異》, 〈批校〉: “‘田’乃‘缶’誤……‘校’次‘榭’, ‘櫨’下, 則小徐說長.”

무를 엮어 울타리를 만든 것으로서, 사냥할 때의 시설물이다. …… 앞에서 인용한 顏師古의 세 가지 설명에 근거하면 이 “木田”의 의미를 밝힐 수 있다. ‘櫨’는 큰 배[大船], ‘櫨’는 큰 둥지[大巢], ‘校’는 큰 울타리[大關]이니, ‘校’를 ‘櫨’와 ‘櫨’ 사이에 배치하여 동일한 유형을 차례대로 설명한 것이다. 이것을 통해 본래 許慎의 訓釋이 “木田”임을 알 수 있다.

아마도 ‘木’자의 앞에는 ‘交’가 있었을 것이다. “나무를 엮어 사냥하다[交木田]”라고 되어있었으면 그 말이 더욱 완정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복된 篆書를 지우는 과정에서 혼동을 일으켜 “交”자를 빼버린 듯하다. 이렇게 되니 독자들이 갑자기 그 설명을 이해하지 못 하고, 오히려 “田”을 잘 못된 글자라고 의심하였고 이에 여러 가지 異說이 생겨났던 것이다.

그래서 徐鉉은 “木囚”라고 하였고 徐鍇는 “木缶”라고 하였다. ‘木囚’와 의미연관성이 있는 《周易》의 ‘荷校’·‘屨校’를 근거로 제시하더라도, ‘校’의 篆書가 ‘械’·‘杵’·‘桎’·‘梏’과 함께 배치되지 않았으니 “木囚”라는 徐鉉의 訓釋은 틀렸다. “木缶”의 경우, 徐鍇는 “나무를 장군 모양으로 만들어서 서로 붙여놓은 것”이라 설명하면서 “나무로 제작한 장군을 이용해 군대가 강을 건넜다”는 韓信의 고사를 인용하고 있는데, ‘櫨’·‘梏’·‘櫨’·‘校’의 순서를 고려하면 일리가 있다. 하지만 고대에 그런 예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다는 점에서 다소 억지스럽다. “囚”와 “缶” 모두 글자 형태가 비슷하여 譌誤가 발생한 것으로서, 唐寫本의 “田”이 가장 합리적이다.²⁶⁾

요컨대 莫友芝는 顏師古와 같이 ‘校’의 本義를 “나무를 뚫어 서로 엮다 [以木相貫穿]”로 확정하고, 許慎의 訓釋을 “木田”이라 고친다. 莫友芝는 徐鉉의 “木囚”와 徐鍇의 “木缶”가 모두 억지스럽다고 주장하면서, 唐寫本

26) 莫友芝, 《仿唐寫本〈說文解字〉木部箋異》, 〈莫彝孫述〉: “唯‘校’之訓‘木田’, 《箋》以‘田’爲誤字, 謂當從二徐. 今細審之, 唐本是而二徐誤也. 刊成不便增改, 汝可記吾說於卷尾, 以補正之. 按: ‘田’卽《周禮》〈大司馬〉‘蒐田, 苗田, 獮田, 狩田’之‘田’, ‘木田’者, 謂編木爲校, 以供田事也. …… 據小顏三說, 正以發明‘木田’之義. ‘櫨’爲‘大船’, ‘櫨’爲‘大巢’, ‘校’以‘大關’, 介‘櫨’‘櫨’間, 次類相從, 知‘木田’是許君本文矣. ‘木’上蓋當有‘交’字, 其辭乃完, 殆由刪疊篆者以疑似去之. 讀者驟不得其說, 反疑‘田’爲誤字, 而岐異遂生. 故‘田’字大徐作‘囚’, 小徐又作‘缶’. 證以《易》‘荷校, 屨校’, ‘木囚’近似, 而‘校’篆不與‘械’·‘杵’·‘桎’·‘梏’相次則非是. ‘木缶’, 鍇謂‘以木爲缶形相連接’, 舉韓信‘以木罌缶渡軍’爲比, 取傳合於‘櫨’·‘梏’·‘櫨’·‘校’之相次, 然於古未聞, 稍嫌迂曲. 自緣形近譌誤, 皆不如唐本爲長.”

의 “木田”이 가장 좋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許慎이 ‘校’를 “나무 사냥 [木田]”으로 訓釋했다는 것으로서 여전히 顏師古가 파악한 ‘校’의 本義인 “나무를 서로 엮다[以木相貫]”와 거리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莫友芝는 ‘校’에 대한 許慎의 訓釋이 본래 “交木田”이었을 것이라 추정한다. 후대의 필사본에서는 “木田” 앞의 “交”를 중복이라 잘못 판단하여 삭제하였는데, 이 때문에 許慎 訓釋의 의미가 불분명해졌고 다시 ‘田’자와 형태가 유사한 ‘囚’나 ‘缶’와 같이 연쇄적인 譌誤가 발생하였다는 추측이다. 莫友芝의 추론은 흥미롭긴 하지만, ‘田獵’의 ‘田’에 집착한 牽強附會의 느낌을 면할 수 없다.

이 때문에 張文虎의 《舒藝室隨筆》에서는 《說文解字》唐寫本の “木田”을 다시 “木𠂔”으로 고쳐 읽는다. ‘𠂔(관)’은 ‘貫’의 古字로서 《說文解字》에서는 “물건을 뚫어 쥐는 것[穿物持之也]”으로 訓釋하고 있다. 篆書로는 𠂔과 같이 써서 ‘田’과 매우 흡사하다.²⁷⁾

莫友芝는 顏師古의 注에 근거하여 ‘田’이 옳다고 판단한다. 조심스럽게 내 의견을 말하자면, ‘田’은 ‘𠂔’의 譌誤이다. 이 ‘𠂔’은 바로 顏師古가 말한 “以木相貫”의 ‘貫’이다. 분명 “木𠂔”이라 했을 텐데, 잘못 도치하여 “木田”이 되었고 그것을 다시 글자 형태가 비슷한 “木田”으로 잘못 쓴 것이다. 여기에서 다시 ‘囚’字나 ‘缶’字로 잘못 쓰는 현상이 발생했으니, ‘鳥’字나 ‘馬’字가 ‘馬’字가 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²⁸⁾

張文虎는 ‘校’에 대한 許慎의 訓釋이 원래 “木田”이었는데, 여기에서 “木田”→“木田”→“木囚”/“木缶”로 연쇄적인 譌誤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張文虎의 추정은 “사냥[田]”의 의미에 얽매이지 않고 顏師古가 말

27) 《說文解字》〈𠂔〉：“穿物持之也。从一橫田，象寶貨之形。凡𠂔之屬皆从𠂔，讀若冠。”

28) 張文虎, 《舒藝室隨筆》, 續修四庫全書 1164, 卷2: “莫君據此以爲‘田’字是。竊謂如莫說, 則‘田’當爲‘𠂔’字之譌。‘𠂔’, 卽‘以木相貫’之貫字, 文當云‘木田也’, 誤倒作‘木田’, 又以形近譌爲‘田’, 於是爲‘囚’爲‘缶’, 鳥焉成馬矣。”

한 “나무를 뚫어 서로 엮는다[以木相冊]”는 本義와 직접적으로 연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劉師培 역시 〈古本字考〉에서 이러한 張文虎의 설을 지지한다.²⁹⁾

《說文解字》 ‘校’의 訓釋에 관한 네 가지 異說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순번	訓釋	출 처
1	木囚	徐鉉本, 徐鍇 《說文解字繫傳》 祁嵩藻 刻本
2	木缶	徐鍇 《說文解字繫傳》 校勘本
3	木田	唐寫本 《說文解字》, 莫友芝 《仿唐寫本〈說文解字〉木部箋異》
4	木冊	張文虎 《舒藝室隨筆》, 劉師培 〈古本字考〉

이 가운데 徐鉉이나 徐鍇의 底本보다 더 오래된 唐寫本이 현존 最古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³⁰⁾ “木囚”나 “木缶”보다는 “木田”이 원래의 형태를 보존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또한 “木田”보다는 “木冊”이 “以木相貫”이라는 ‘校’의 本義를 가장 잘 합리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許慎 訓釋의 가장 원시적인 형태를 “木冊” 혹은 “冊木”으로 교감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존하는 실물의 연대를 기준으로 그 원시 형태를 확정하기는 어렵다. 初唐 시기 顏師古가 참조한 《說文解字》에는 ‘校’의 訓釋을 현재의 통행본과 마찬가지로 “木囚”라 하고 있기 때문이다.³¹⁾

29) 劉師培, 〈古本字考〉, 《左龔外集》, 《劉申叔遺書》: “《說文》: 校, 木冊(‘冊’字, 或者誤爲‘田’, 今本作‘囚’, 並非)也. 是‘校’爲橫木之稱.”

30) 일반적으로 이 《說文解字》 〈木部〉 唐寫本 殘卷을 中唐 시기에 필사된 것으로 추정한다. 李宗焜, 〈唐寫本《說文解字》殘卷研究〉, 《唐寫本《說文解字》輯存》(上海: 中西書局, 2015) 26쪽 참조.

31) 班固, 《漢書》 卷69 〈趙充國辛慶忌傳〉 顏師古 注: “《說文解字》云: ‘校, 木囚也’, 亦謂以木相貫, 遮闌禽獸也.”

IV. ‘校’의 假借義

‘校’의 引伸義에서 “문헌의 考訂”의 의미를 추론하는 설명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앞에서 언급한 程千帆·徐有富의 의견으로서, 두 조각으로 이루어진 ‘木枷’를 서로 맞추어 본다는 의미에서 ‘비교’·‘문헌의 考訂’이라는 뜻을 추론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管錫華의 설명으로, 程千帆·徐有富와 마찬가지로 ‘校’의 本義를 ‘木枷’나 ‘刑具의 통칭’으로 파악한다는 점은 유사하지만, ‘木枷’의 모양보다는 ‘규범’이라는 추상적 의미를 상정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즉, ‘木枷’ → ‘규범[範]’ → ‘심사[考核]’ → ‘문자의 考核’으로 引伸되었는 주장이다.³²⁾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校’의 本義를 ‘木枷’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문헌의 考訂”이라는 뜻을 끌어내는 것은 의미론적 근거가 매우 희박할 뿐만 아니라 문헌상의 용례를 거의 찾을 수 없다. 程千帆·徐有富나 管錫華처럼 ‘校’의 引伸義로서 “문헌의 考訂”을 유추하는 것은 許慎이 말한 ‘木囚’에 그 의미를 억지로 끼워 맞춘 설명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校’가 다른 단어를 대신하여 표기되는 경우를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校’와 소리가 비슷한 단어 가운데 ‘문자의 考訂’과 연관을 지을 수 있는 ‘較’·‘校’·‘鞫’·‘推’·‘權’·‘效’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 ‘較’

‘문자의 考訂’과 함께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개념은 ‘견주다’·‘비교하다’로서, 현재는 일반적으로 ‘較’를 이용하여 표기한다. 하지만 ‘견주다’·‘비교하다’가 ‘較’의 本義는 아니다. ‘較’의 원래 자형은 ‘較’로서 《說文解字》에서는 “수레 양쪽 난간에 거는 고리[車轄上曲鉤]”라고 설명하였다. 段玉裁는 “車轄上曲鉤”에서 ‘견주다’라는 의미가 나왔다고 설명한다.

32) 管錫華, 《漢語古籍校勘學》(成都: 巴蜀書社, 2003) 4쪽 참조.

較를 통해 尊卑를 구별하는 것은 周代부터 이미 있었다. 그러므로 劉熙는 “較는 수레의 가마[車箱] 위에 위치하여 지위를 비교할 수 있게 해준다. 重較는 較를 二重으로 설치한 수레로서 卿이 탄다”라고 말했다. …… 오로지 較를 통해서만 尊卑를 비교할 수 있었으니, 이 때문에 引伸하여 ‘比較’라는 의미가 생긴 것이다. 이 글자는 ‘校’라고 쓰기도 하는데, 세속에서는 ‘校’로 쓰기도 한다. 무릇 ‘校驪’라고 할 때는 ‘較’로 쓸 수 있다.³³⁾

고대에는 수레에 거는 고리[較]를 통해 지위의 상하를 비교했기 때문에 ‘較’에서 ‘비교’하다는 뜻이 파생하였고, 이러한 개념에 대한 假借字로서 ‘校’나 ‘校’가 사용되었다는 것이 段玉裁의 설명이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段玉裁는 周代에서 漢代까지 ‘較’의 형태와 문화를 자세히 고증하지만, ‘수레의 양쪽 난간에 거는 고리’에서 ‘비교’에 이르는 引伸 과정의 유추가 다소 억지스럽다. ‘較’자 역시 ‘비교하다’는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의 假借字일 가능성이 있다.

2. ‘校’

段玉裁가 ‘較’의 假借字로 파악한 ‘校’ 역시 고찰할 필요가 있다. 《周禮》〈夏官司馬〉 서문에서 설명한 “校人”에 대해서, 鄭玄은 “‘校’는 ‘校’의 뜻으로서, 말을 주관하는 자는 반드시 비교하면서 지켜보아야 한다”³⁴⁾라고 해설하였다. 그런데 陸德明은 아래의 ‘校’를 ‘校’로 교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校’는 戶와 敎의 反切로서, ‘木’으로 구성된 글자이다. 만약 ‘手’로 구성된 글자라면 ‘比校’의 의미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지금 사람들이 혼

33) 段玉裁, 《說文解字注》, 〈較〉: “較辨尊卑, 自周已然. 故劉熙曰: ‘較在箱上, 爲重較也. 重較, 其較重, 卿所乘也. …… 惟可辜推尊卑, 故其引伸爲計較之較, 亦作校, 俗作校. 凡言校驪, 可用較字.’”

34) 《周禮》 卷28 〈夏官司馬〉 鄭玄 注: “校之爲言校也, 主馬者必仍校視之.”

동하여 ‘校’라고 잘못 쓴 것이다.³⁵⁾

즉, 陸德明은 ‘비교’를 나타내는 단어는 원래 ‘按’로 써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鄭玄의 注가 원래 “校之爲言按也, 主馬者必仍按視之”라고 되어 있었을 것이라 추측한다. 阮元(1764~1849)의 《十三經注疏校勘記》에서도 ‘校’를 ‘按’로 고쳐 읽으면 文理가 더욱 순통해진다는 점을 인정한다.³⁶⁾ 宋代의 郭忠恕도 “按’는 음이 ‘教’이며 ‘비교’의 뜻”이라고 설명하고 있다.³⁷⁾

하지만 ‘按’는 《說文解字》나 《玉篇》에는 나오지 않는다. 錢大昕이 지적하듯이 漢代 石經부터 ‘木’旁을 ‘手’旁으로 쓰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隸變으로 인한 현상이지 본래 ‘按’자가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³⁸⁾ ‘校’와 ‘按’의 관계에 대해 段玉裁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혔다.

陸德明은 ‘비교’의 의미를 나타내는 글자는 마땅히 ‘手’旁의 ‘按’로 써야 한다고 말한다. 張參 《五經文字》의 〈手部〉에서는 “按에 대해 經典이나 《釋文》에서 ‘비교’를 나타내는 글자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字書を 찾아보면 이 글자가 없다”라고 말한다. 張參의 말은 바로 《說文解字》에는 ‘手’로 구성된 ‘按’가 없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다. 唐石經의 ‘校’를 살펴보면 모두 ‘木’旁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張參의 의견을 따른 것이다. 하지만 《周禮》의 鄭玄 注를 考訂해보면 漢代에도 ‘手’旁을 쓰는 ‘按’자가 있었을 것이다. ‘비교’의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는 예부터 규범화된 글 正文가 없어서 ‘較’나 ‘權’ 등을 모두 쓸 수 있다.³⁹⁾

35) 陸德明, 《經典釋文》, 〈周禮音義下〉, 〈夏官司馬上〉: “校, 戶教反, 字從木. 若從手, 用比較之字耳. 今人多說亂之.”

36) 阮元, 《周禮注疏校勘記》 卷7 참조.

37) 郭忠恕, 《佩觿》: “按, 音教, 比也.”

38) 錢大昕, 《十駕齋養新錄》 卷3 〈陸氏釋文多俗字〉 참조.

39) 段玉裁, 《說文解字注》, 〈校〉: “陸德明曰, ‘比較字當從手旁.’ 張參《五經文字》〈手部〉曰: ‘按, 經典及《釋文》或以爲比較字. 案字書無文.’ 張語正謂《說文》無從手之按也. 故唐石經考校字皆從木, 用張說也. 但訂以《周禮》鄭注, 則漢時固有從手之按矣. 比較字, 古蓋無正文, 較權等皆可用.”

段玉裁는 ‘校’를 설명할 때는 ‘비교’의 의미를 ‘較’의 引伸義로 파악하였지만, 이곳에서는 ‘비교’를 뜻하는 단어에 해당하는 글자가 없어서 ‘校’·‘校’·‘較’·‘權’ 등을 가차하여 썼다고 말한다. 明末清初의 목판본에는 ‘校’를 대신하여 ‘校’나 ‘較’를 쓰는 경우가 많아 惠棟·黃宗羲·顧炎武 등도 ‘校勘’의 ‘校’를 ‘校’로 쓰기도 했는데, 이러한 현상은 이름이 ‘由校’였던 明 熹宗의 避諱를 위한 것으로서 ‘校’의 本義 파악과는 큰 관계가 없다.⁴⁰⁾

3. ‘斛’

清代에는 문헌의 교감을 뜻하는 글자로 ‘斛’자를 쓰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錢坫의 《說文解字斛詮》과 같이 문헌 교감의 성과를 책으로 엮으면 ‘斛’을 사용하기도 하였다.⁴¹⁾ 현대의 문헌학자 王叔岷은 ‘校讎’를 ‘斛讎’로 표기하며, ‘校勘學’을 ‘斛讎學’으로 부르고 있다.⁴²⁾ 이러한 경향은 기본적으로 ‘校勘’·‘校讎’의 ‘校’를 ‘斛’의 假借字로 보기 때문이다.

《說文解字》〈斗部〉에서는 ‘斛’에 대해 “斗나 斛의 양을 평평하게 하는 것”⁴³⁾이라 訓釋하고 있다. 즉, 부피를 측정하는 용기인 斗나 斛에 곡물을 담고 넘치는 부분을 깎아내어 양을 정확히 맞추는 행위, 혹은 그것을 위한 도구인 ‘평미레’라는 의미이다.

《禮記》〈月令〉에 “同度量, 鈞衡石, 角斗甬, 正權概”라는 구절이 보이는데, 이곳의 ‘角斗甬’의 의미가 바로 ‘斛’이다. 〈月令〉의 注에서 鄭玄은 ‘甬’을 당시의 ‘斛’으로 해설하며, ‘同’·‘角’·‘正’을 모두 ‘평평하게 하다’로 풀이하였다.⁴⁴⁾ 段玉裁도 ‘角斗甬’의 ‘角’을 ‘斛’의 假借字로 파악하였다.⁴⁵⁾

40) 陳垣, 《史諱舉例》; 王玉樹, 《說文拈字》, 〈正俗〉; 蔣元卿, 《校讎學史》; 王旭光, 〈對《史諱舉例》的一條補充〉, 《文獻》 1989년 제3기; 張涌泉, 〈對《史諱舉例》的一條補充再補〉, 《文獻》 1989 제4기 참조.

41) 예를 들어 楊廷瑞의 《說文經斛》, 孫詒讓의 《大戴禮記斛補》와 《周書斛補》, 錢培 《新編注地理志》 등이 있다.

42) 王叔岷, 《斛讎學·斛讎別錄》: “斛讎, 舊作校讎.”

43) 《說文解字》〈斛〉: “斛, 平斗斛量也.”

이러한 측면에서 朱駿聲이나 張舜徽는 ‘비교’·‘교정’·‘검토’를 뜻하는 단어를 나타내는 규범화된 문자[正字]가 바로 ‘鬪’이라고 주장한다. 즉, ‘比較’·‘較量’·‘計較’·‘大較’의 ‘較’, ‘角力’의 ‘角’, ‘權醜’의 ‘權’, ‘揚摧’의 ‘摧’, ‘校讎’의 ‘校’ 등은 모두 그 本字가 ‘鬪’이라는 것이다.⁴⁶⁾ 그러므로 ‘문헌의 考訂’을 뜻하는 ‘校’ 역시 ‘鬪’의 假借字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校’의 本字를 ‘較’로 판단한 段玉裁는 이와 같은 견해에 반대한다. 비록 ‘鬪’과 ‘校’의 소리와 의미가 비슷하긴 하지만, ‘校勘’·‘校讎’의 ‘校’를 ‘鬪’으로 고쳐쓰는 것은 단지 “기이한 것만 너무 좋아하는 태도”라고 비판하였다.⁴⁷⁾ 劉師培 또한 “鬪”이 “校”의 本字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최근에 학자들이 (‘校勘’의 ‘校’를 대신하여) ‘鬪’을 자주 쓰는데, 이는 ‘鬪’의 의미가 “도와 斛을 평평하게 하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옛말 가운데 오직 ‘角用’이나 ‘角力’의 ‘角’만을 이 ‘鬪’으로 바꿀 수 있다. ‘勹’와 ‘交’의 古音은 동일한 音部가 아니기 때문에, ‘校’를 ‘鬪’으로 써서는 안 된다.⁴⁸⁾

특히 고전 문헌에서 ‘문자의 考訂’을 의미할 때 ‘鬪’을 사용하는 용례를 거의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校’가 ‘鬪’의 假借字라는 의견 역시 동의하기 어렵다.

44) 《禮記》〈月令〉鄭玄注: “同、角、正, 皆謂平之也。…… 角, 今斛也。”

45) 段玉裁, 《說文解字注》, 〈鬪〉: “〈月令〉: ‘角斗用, 正權槩.’ 鄭注: ‘角、正皆謂平之也.’ 角者, 鬪之假借字。”

46) 朱駿聲, 《說文通訓定聲》, 〈鬪〉: “凡較量、校讎、權醜、揚摧字, 疑皆當作此爲正文。”; 張舜徽, 《說文解字約注》: “語所僞計較、比較、大較、角力、校讎本皆作鬪。”

47) 段玉裁, 《說文解字注》, 〈鬪〉: “今俗謂之校, 音如教, 因有書校讎字作此者。音義雖近, 亦大好奇矣。”

48) 劉師培, 〈古本字考〉, 《左盦外集》, 《劉申叔遺書》: “近儒恒用‘鬪’字, 不知‘鬪’訓平斗斛, 古惟‘角用’、‘角力’, 宜易斯文。勹聲、交聲, 古非同部, 弗得以‘校’爲‘鬪’也。”

4. ‘推’과 ‘權’

劉師培는 ‘校’를 ‘推’의 假借字로 파악한다. 《說文解字》에서는 ‘推’을 “두드리고 치다[敲擊]”로 訓釋하고 그 독음은 ‘雀’이라고 설명하였는데,⁴⁹⁾ ‘推’의 引伸 과정에 대해 劉師培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校’의 本字를 고찰해보면 대체로 마땅히 ‘推’으로 써야 한다. ‘推’에 대해 《說文解字》에서는 “두드리고 치다”라고 하였고, 《廣雅》〈釋詁〉에서는 “치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옛 책의 글에서 뜻을 비교·검토하여 파악해야 하는 경우에는 항상 그 뜻을 처서 정확한 의미를 이끌어내야 한다. 대체로 옆에서 치고 내부에서 두드리는 방법으로 그 진정한 의미를 검토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현재 “밀고 두드린다[推敲]”고 이르는 것과 같다. ……

‘推’은 “양을 헤아려 그 수를 비교한다”는 뜻이니, 유사한 용례를 많이 찾을 수 있다. ‘雀’은 ‘交’와 동일한 音部이니 ‘校’를 빌려 ‘推’을 표현한 것이다. 또한 ‘較’는 ‘校’와 다르기는 하지만, ‘較’를 대신해 ‘校’를 써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推擧’를 ‘較擧’로 쓰거나 ‘攘推’을 ‘揚校’로 쓰기도 한다. 《文選》〈吳都賦〉에 “商推萬俗”이라 하였는데, ‘推’이라는 규범적인 글자[正名]를 사용한 것은 이 〈吳都賦〉에서만 보인다. 실제로는 ‘讎校’ 등에 쓰는 여러 가지 글자는 ‘推’을 써서 규범화된 글자체[正體]로 삼아야 한다.⁵⁰⁾

‘비교’·‘검토’·‘교정’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단어의 本字는 ‘商推’의 ‘推’으로서, 이것은 두드리고 치는 행위가 引伸되어 생겨난 의미라는 것이 劉師培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 劉師培는 敏·敷·黻·扣·攻·攷·揣 등 ‘手(扌)’

49) 《說文解字》, 〈推〉: “敲擊也。从手雀聲。”

50) 劉師培, 〈古本字考〉, 《左龔外集》, 《劉申叔遺書》: “考其本字, 蓋當作推。《說文》: ‘推, 敲擊也’。《廣雅》〈釋詁〉: ‘推, 擊也’。古籍之文, 凡義涉比覈究窮者, 恒由擊義引延。蓋旁擊深捭, 以期核實, 猶今語所云推敲也。…… 推詰度量比數, 厥例實倫。雀交同部, 故卽段校爲推。較爲校別, 作校亦同, 是猶推擧或作較擧, 攘推亦作揚校也。《文選》〈吳都賦〉云: ‘商推萬俗’。推用正名, 斯篇僅見, 實則讎校諸文, 亦以書推爲正體。”

나 ‘支(女)’으로 구성된 글자가 ‘치다’에서 ‘검토하다’의 의미로 인신되는 예의 근거를 제시한다.⁵¹⁾ 劉師培 이전에 王鳴盛도 유사한 관점에서 자신의 저작인 《十七史商榷》의 제명을 ‘商榷’으로 고쳐야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⁵²⁾

하지만 이와 같은 劉師培의 설명 역시 무조건 따르기는 어렵다. 무엇보다도 ‘商榷’·‘揚榷’·‘辜榷’의 ‘榷’은 ‘榷’과 혼용되는데, 段玉裁는 이 때 本字를 ‘榷’이라고 본다.

《漢書》〈武帝紀〉에 “初榷酒酤[처음으로 주류의 전매제도를 시행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에 대해 韋昭는 “나무를 가로놓아 물을 건너는 것을 ‘榷’이라고 부른다. 백성들에게 술의 양조를 금지하고 官府에만 허락한 것이 마치 길에 榷을 설치해 놓고 홀로 이문을 챙기는 것과 같다”라고 하였다. 무릇 大榷·揚榷·辜榷을 말할 때는 이 글자를 써야지 ‘手’가 들어간 ‘榷’을 써서는 안 된다.⁵³⁾

요컨대, 劉師培는 ‘榷’에서 ‘두드리다’는 의미를 취해 ‘비교’·‘검토’·‘판단’의 뜻을 유추하지만, 段玉裁가 인용한 韋昭의 설명을 따르자면 大榷·揚榷·辜榷은 ‘두드리다’는 의미와 전혀 상관이 없다. 段玉裁의 의견을 꼭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를 통해 ‘비교’·‘검토’를 나타내는 ‘榷’이나 ‘榷’ 역시 本字가 아니라 假借字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51) 劉師培, 〈古本字考〉, 《左龔外集》, 《劉申叔遺書》: “試觀敏斂數文, 概从支. 敏訓爲擊, 語云扣端(扣即敏段), 攻訓爲擊, 詰揭攻摩, 攷訓爲敏, 因爲攷問攷覈之稱. 又榷訓爲篋, 別訓爲度, 揣訓爲量, 別訓爲推, 均其諛也.”

52) 王鳴盛, 《蛾術編》卷30: “商榷乃史家語. 顏師古《漢書敘例》: “粗陳指例, 式存揚榷.” 揚榷即商榷意. 予《十七史商榷》竊取其義. 但諸書皆從木, ……震澤姚元祭云“當從手”, 極是. 榷有敲擊意, 作“榷”者非.”

53) 段玉裁, 《說文解字注》, 〈榷〉: “《孝武紀》曰: “榷酒酤.” 韋曰: “以木渡水曰榷. 謂禁民酤釀, 獨官開置, 如道路設木爲榷, 獨取利也.” 凡言大榷, 揚榷, 辜榷, 當作此字, 不當從手.”

5. ‘效’

그렇다면 ‘비교’·‘검토’·‘판단’·‘교정’을 나타내는 단어의 本字는 과연 무엇일까. 張涌泉·傅傑은 ‘效’가 ‘校’의 本字일 가능성을 제시한다. ‘效’와 ‘校’는 기원이 동일한 단어로서, 모두 交가 소리성분으로 구성되어 古音이 서로 같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⁵⁴⁾

《說文解字》〈支部〉에서는 ‘效’를 ‘象’으로 訓釋하고 있는데, 段玉裁는 이를 ‘象’으로 보고 그 의미를 ‘似’로 파악하여 “저쪽의 행동을 이쪽에서 따라하는 것”으로 풀이한다.⁵⁵⁾ 張涌泉·傅傑은 이러한 ‘效’의 의미에서 ‘살펴보다’·‘검증하다’는 의미가 引伸하였다고 설명한다. 《廣雅》〈釋言〉에서는 “效는 ‘검증[驗]’의 의미이다”, “稽·效는 ‘고찰[考]’의 의미이다”라고 하였으며, 王念孫의 《廣雅疏證》에서도 “‘效’는 ‘校’를 말한다”고 해석하였다.⁵⁶⁾

고전 문헌에서 ‘校’가 ‘效’의 의미로 사용된 용례는 쉽게 찾을 수 있다. 《管子》〈牧民〉에는 “宗廟를 공경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그러한 모습을 ‘校’한다”는 구절이 있는데, 이에 대해 尹知章은 “校는 ‘따라하다[效]’는 의미이다. 군주가 존중하지 않으면 백성들도 역시 그렇게 따라한다”라고 주석하고 있다.⁵⁷⁾ 또한 위에서 언급한 《周禮》〈夏官司馬〉“校人”에 대해서, 賈公彥은 “‘校’는 《禮記》〈曲禮〉와 〈少儀〉의 ‘效馬效羊’과 같이 읽고 ‘效’의 의미를 취한다”고 설명하였다.⁵⁸⁾ 《莊子》〈列禦寇〉“彼將任我

54) 張涌泉·傅傑, 《校勘學概論》(南京: 江蘇教育出版社, 2007), 2쪽 참조.

55) 段玉裁, 《說文解字注》, 〈效〉: “象, 當作像. 人部曰, 像, 似也. … 彼行之而此效之.”

56) 王念孫, 《廣雅疏證》, 〈釋言〉: “稽, 效, 考也; 效, 驗也.” 王念孫 注: “效之言校也. 〈月令〉云: ‘分鹵稱絲, 效功.’”

57) 黎翔鳳, 《管子校注》: “不敬宗廟則民乃上校.” 尹知章 注: “校, 效也. 君無所尊, 人亦校之.”

58) 《周禮》卷28 〈夏官司馬〉 鄭玄 注: “校之爲言校也, 主馬者必仍校視之.” 賈公彥 疏: “校之爲言校也者, 讀從曲禮與少儀‘效馬效羊’, 取效見義.”

以事, 而效我以功”에 대해 陸德明은 “‘效’는 글자 그대로의 의미이다. 본래는 ‘校’라고 쓰기도 했는데, 古와 孝의 反切이다”⁵⁹⁾라고 말한다. 또한 《荀子》〈君道〉에 나오는 “知慮取舍, 稽之以成; 日月積久, 校之以功”⁶⁰⁾을 통해서 ‘稽’·‘效’·‘校’가 互文으로서 모두 동일한 의미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曹操의 〈上書讓增封〉의 “考功效實, 非臣之勲”이라는 구절에서도 ‘考’와 ‘效’가 互文으로서 모두 ‘평가’·‘稽考’의 뜻이다.⁶¹⁾

張涌泉·傅傑은 ‘效’에 ‘본받다’·‘따라하다’·‘검증’·‘고찰’의 뜻이 있었는데 후대에는 그 의미가 분화되었다고 추측한다. 즉 ‘仿效’·‘效勞’의 의미와 혼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증’·‘고찰’의 뜻을 나타낼 때는 ‘校’를 주로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나무를 서로 엮는다’는 ‘校’의 본의는 자주 사용되지 않아 혼동을 일으킬 위험성이 적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校’를 ‘效’의 가차자로 파악하는 것은 ‘較’·‘校’·‘斟’·‘推’·‘權’ 등보다는 상대적으로 납득하기 쉬운 의견이다. 하지만 ‘效’가 ‘따라하다’는 의미에서 ‘검증’의 의미로 引伸하는 과정을 충분히 설명하기는 어렵다.

‘校’를 다른 글자의 假借字로 파악하여 그 本字를 규명한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순번	本字	《說文解字》訓釋	聲符	용례	출처
0	校	木凶[木田, 木田]	交	·	·
1	較	車輪上曲鉤	爻	比較	段玉裁 《說文解字注》
2	校	·	·	比校	陸德明 《經典釋文》
3	斟	平斗斛量	蕪	·	王叔岷 《斟讎學》
4	推	敲擊	隹	商推, 揚推, 辜推	劉師培 《左盦外集》

59) 郭慶藩, 《莊子集釋》, 〈列禦寇〉“彼將任我以事, 而效我以功”, 唐 陸德明 《釋文》“效, 如字, 本又作校, 古孝反.”

60) 王先謙, 《荀子集釋》, 〈君道〉: “知慮取舍, 稽之以成; 日月積久, 校之以功.”

61) 歐陽詢, 《藝文類聚》 권51 〈封爵部〉: “考功效實, 非臣之勲.”

순번	本字	《說文解字》 訓釋	聲符	용 레	출 처
5	榷	水上橫木	雀	大榷, 揚榷, 辜榷	.
6	效	象	交	效功, 效試, 效實	張涌泉 《校勘學概論》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校’를 특정한 글자의 가차자로 상정하고 그 本字를 확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역대 학자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살펴 보아도 모두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 한다.

이 때문에 고대에는 ‘비교’·‘검토’·‘고찰’·‘판단’·‘교정’·‘정리’를 뜻하는 말이 있었지만, 그 단어에 대한 규범화된 문자[正字]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즉, 그러한 단어를 ‘校’와 유사하게 발음하였는데, 그것을 문자로 기록하는 과정에서 ‘較’·‘校’·‘𢵒’·‘榷’·‘權’·‘效’·‘校’ 등 다양하게 표기했고, 이러한 글자 가운데 특히 ‘校’를 이용해 ‘文獻의 정리’와 관련된 행위를 표기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V. 결론

‘校’는 多義字로서 “고대 木枷와 같은 刑具의 통칭”, “울타리”, “사냥”, “군대의 단위나 계급”, “헤아리고 비교하다”, “검토하다”, “校勘”, “학교”, “모방하다” 등 《漢語大詞典》에서 구분한 의미항만 스물아홉 가지이다. 이 논문은 그 가운데 “문자의 考訂”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그 本義를 추적하고 여러 가지 引伸義와 假借義를 고찰하였다. 이렇게 다양한 층위에서 ‘校’를 검토한 결과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실을 밝혀내었다.

첫째, ‘校’의 本義는 顏師古가 《漢書》에서 여러 차례 해설했듯이 “나무를 뚫어 서로 연결하다[以木相貫穿]”라는 뜻이다. 段玉裁나 王筠과 같은

清대의 학자들은 “校, 木囚也”라는 《說文解字》의 訓釋을 바탕으로 ‘校’의 本義를 ‘木枷’나 ‘죄인을 가두는 울타리’라고 파악하였지만, 이는 통행본 《說文解字》의 譌字로 인하여 발생한 오류이다.

둘째, ‘校’에 대한 《說文解字》의 訓釋은 역대의 傳本에 따라 “木囚”, “木缶”, “木田” 등 다양했지만, 張文虎가 최종적으로 밝혔듯이 원래 “木𠂔”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𠂔’은 ‘貫’의 古字이기 때문에 “以木相貫”이라는 顏師古의 해설에도 부합하고, 그 字形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나무[木]를 교차하다[交]”라는 의미와도 통한다.

셋째, 그렇다면 “문헌의 考訂”이라는 의미는 ‘校’의 假借義로 파악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校’와 소리가 비슷한 단어 가운데 유사한 의미를 지닌 ‘較’·‘校’·‘擗’·‘擗’·‘擗’·‘效’ 등을 자세히 검토하여, “校”가 비교·검토·교찰·판단·정리·교정 등의 의미를 갖는 말[詞]의 規範화된 글자[正字]라고 추정하였다.

‘校’의 뜻을 문자학과 의미론의 관점에서 규명하면 ‘규범’·‘비교’·‘刪削’·‘訂定’·‘稽考’ 등의 술어가 환기하는 이미지만을 떠올릴 수 있다. 사실 그 술어를 사용했던 옛날 사람들도 ‘校’의 자의를 명확히 이해한 바탕 위에서 전적을 다루는 특정한 행위를 지칭하였다기보다는, 통상적인 용례에 따랐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이 여러 층위에서 ‘校’에 대해 살펴보았지만, 이 논문은 ‘校’의 假借義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시한 여러 글자들의 고음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갖는다. 어떤 글자의 의미론을 깊이 연구하기 위해서는 의미 추적과 함께 음성적인 측면의 분석을 진행해야 한다. 이를 향후의 연구 과제로 남겨둔다.

〈References〉

1. Ban Gu. *Hanshu*. Zhonghua Book Company, 1983.

2. Cheng Peiyuan. *Shuowen Jiezi Xizhuan Collation*. Zhonghua Book Company, 1987.
3. Cheng Qianfan. *Jiaochou Guangyi: Jiaokan Bian*. Qilu Press, 1998.
4. Chen Yuan. *Shihui Julü*. Beijing Normal University Press, 1982.
5. Guan Xihua. *Hanyu Guji Jiaokanxue*. Bashu Press, 2003.
6. Guo Qingfan. *Zhuangzi Annotations*. Zhonghua Book Company, 1961.
7. Guo Zhongshu. *Pei Xi*. Zhonghua Book Company, 1985.
8. Jiang Yuanqing. *Jiaochou Xueshi*. The Commercial Press, 1935.
9. Li Xiang Feng. *Guanzi annotations*. Zhonghua Book Company, 2004.
10. Li Zongkun. *Tang Shuowen Jiezi Manuscript Reservation*. Zhongxi Book Company, 2015.
11. Li Zongkun. “A Study on Tang Manuscript of Shuwen Jiezi”. *Tang Shuowen Jiezi Manuscript Reservation*. Zhongxi Book Company, 2015.
12. Liang Guanghua. “A Introduction on Mo Youzhi and Tang Manuscript of *Shuowen Jiezi* Wood Part”. *A Annotation of Tang Manuscript of Shuowen Jiezi Wood Part*. Guizhou People’s Press, 1998.
13. Liu Shipai. “Gu Benzi Kao”. *Liu Shenshu Yishu*. Fenghuang Press, 2014.
14. Lu Deming. *Jingdian Shiwen*. Shanghai Guji Press, 2012.
15. Ouyang Xun. *Yiwen Leiju*. Shanghai Guji Press, 1999.
16. Qian Daxin. *Shijiazhai Yangxinlu*. Shanghai Bookstore Press, 2011.
17. Ruan Yuan. *The thirteen classics collation and annotation*. Shanghai Guji Press, 1995.
18. Shirakawa Shizuka. *Zitong*. Tokyo: Heibonsha, 2007.
19. Sima Qian. *Shiji*. Zhonghua Book Company, 1959.
20. Sun Zhentian. “A Study on Authors of *Shuwen Jiezi Xizhuan*

- Collation*". *Shandong Library Quarterly* No.4, (2006).
21. The Thirteen Classics Arrangement Committee. *Zhou Yi Zhengyi*. Beijing University Press, 2000.
 22. The Thirteen Classics Arrangement Committee. *Zhou Li Zhushu*. Beijing University Press, 2000.
 23. The Thirteen Classics Arrangement Committee. *Li Ji Zhengyi*. Beijing University Press, 2000.
 24. Wang Chong. *Lunheng*. Zhonghua Book Company, 1997.
 25. Wang Jun. *Shuowen Jiezi sentence reading*. Zhonghua Book Company, 1988.
 26. Wang Mingsheng. *Eshu Bian*. Shanghai Bookstore Press, 2012.
 27. Wang Niansun. *Guangya Shuzheng*. Jiangsu Guji Press, 2000.
 28. Wang Shumin. *Jiaochouxue*. Zhonghua Book Company, 2007.
 29. Wang Xianqian. *Xunzi Annotations*. Zhonghua Book Company, 1988.
 30. Wang Xuguang. "A Supplement of *Shihui Juli*". *Wenxian* No.3, (1989).
 31. Wang Yushu. *Shuowen Nianzi*. Beijing Publishing House Group, 1997.
 32. Xu Shen, Duan Yucai. *Annotation on Shuowen Jiezi*. Shanghai Guji Press, 1981.
 33. Xu Shen, Duan Yucai. *Annotation on Shuowen Jiezi*. Fenghuang Press, 2007.
 34. Xu Kai. *Shuowen Jiezi Xizhuan*. Zhonghua Book Company, 1987.
 35. Zhu Junsheng. *Shuowen Tongxun Dingsheng*. Zhonghua Book Company, 1984.
 36. Zhang Shunhui. *Notes to Interpretation of Articles and Words*. Huazhong Normal University Press, 2009.
 37. Zhang Wenhui. *Shuyishi Suibi*. Shanghai Guji Press, 1995.

38. Zhang Yongquan. *Jiaokanxue Gailun*. Jiangsu Education Press, 2007.
39. Zhang Yongquan. “Another Supplement of *Shihui Juli*”. *Wenxian* no.4, (1989).
40. Zhou Zumo. “Tang Manuscript of *Shuowen Jiezi* and Ancient Pronunciation”. *Wenxue Ji*. Zhonghua Book Company, 1983.

〈참고문헌〉

1. 班固, 《漢書》, 中華書局, 1983.
2. 承培元, 《說文解字繫傳校勘記》, 《說文解字繫傳》, 中華書局, 1987.
3. 程千帆·徐有富, 《校讎廣義: 校勘編》, 齊魯書社, 1998.
4. 陳垣, 《史諱舉例》, 勵耘書屋叢刻, 北京師範大學出版社, 1982.
5. 管錫華, 《漢語古籍校勘學》, 巴蜀書社, 2003.
6. 郭慶藩, 《莊子集釋》, 中華書局, 1961.
7. 郭忠恕, 《佩觿》, 中華書局, 1985.
8. 蔣元卿, 《校讎學史》, 商務印書館, 1935.
9. 黎翔鳳, 《管子校注》, 中華書局, 2004.
10. 李宗焜 編著, 《唐寫本〈說文解字〉輯存》, 中西書局, 2015.
11. 李宗焜, 〈唐寫本《說文解字》殘卷研究〉, 《唐寫本〈說文解字〉輯存》, 中西書局, 2015.
12. 梁光華, 〈論莫友芝及其《唐寫本說文解字木部箋異》〉, 《唐寫本說文解字木部箋異注評》, 貴州人民出版社, 1998 .
13. 劉師培, 〈古本字考〉, 《左龔外集》, 《劉申叔遺書》, 鳳凰出版社, 2014.
14. 陸德明, 《經典釋文》, 上海古籍出版社, 2012.
15. 歐陽詢, 《藝文類聚》, 上海古籍出版社, 1999.
16. 錢大昕, 《十駕齋養新錄》, 上海書店出版社, 2011.
17. 阮元, 《十三經注疏并釋文校勘記》(文選樓本), 續修四庫全書, 上海古

- 籍出版社, 1995.
18. 白川靜, 《字統》, 東京: 平凡社, 2007.
 19. 司馬遷, 《史記》, 中華書局, 1959.
 20. 十三經注疏整理委員會整理, 《周易正義》, 北京大學出版社, 2000.
 21. 十三經注疏整理委員會整理, 《周禮注疏》, 北京大學出版社, 2000.
 22. 十三經注疏整理委員會整理, 《禮記正義》, 北京大學出版社, 2000.
 23. 孫振田, 〈《說文解字繫傳校勘記》撰者訂誤〉, 《山東圖書館季刊》第4期, 2006年.
 24. 王充, 《論衡》, 中華書局, 1997.
 25. 王筠, 《說文解字句讀》, 中華書局, 1988.
 26. 王鳴盛, 顧美華 整理, 《蛾術編》, 上海書店出版社, 2012.
 27. 王念孫, 《廣雅疏證》, 南京: 江蘇古籍出版社, 2000.
 28. 王叔岷, 《斟讎學·斟讎別錄》, 北京: 中華書局, 2007.
 29. 王旭光, 〈對《史諱舉例》的一條補充〉, 《文獻》第3期, 1989.
 30. 王先謙, 《荀子集解》, 中華書局, 1988.
 31. 王玉樹, 《說文拈字》, 四庫未收書輯刊, 北京出版社, 1997.
 32. 許慎 撰, 段玉裁 注, 《說文解字注》, 上海古籍出版社, 1981.
 33. 許慎 撰, 段玉裁 注, 《說文解字注》, 鳳凰出版社, 2007.
 34. 徐鍇, 《說文解字繫傳》, 中華書局, 1987.
 35. 朱駿聲, 《說文通訓定聲》, 中華書局, 1984.
 36. 張舜徽, 《說文解字約注》, 華中師範大學出版社, 2009.
 37. 張文虎, 《舒藝室隨筆》, 《續修四庫全書》, 上海古籍出版社, 1995.
 38. 張涌泉·傅傑, 《校勘學概論》, 江蘇教育出版社, 2007.
 39. 張涌泉, 〈對《史諱舉例》的一條補充再補〉, 《文獻》第4期, 1989.
 40. 周祖謨, 〈唐本說文與說文舊音〉, 《問學集》, 中華書局, 1983.

〈Abstract〉

‘Jiao校’ is a word with multiple meanings, as *Hanyu Dacidian* 漢語大詞典 describes its twenty-four meanings such as ‘pillory’, ‘fence’, ‘a unit of troops’, ‘compare’, ‘collation’, ‘textual criticism’, ‘school’, ‘imitate’ and so on. The aim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original meaning and to examine derived and borrowing meanings of ‘Jiao’ on the basis of a question: where the meaning of ‘textual criticism’ comes from?

Through this study, we can confirm several facts below: first, the original meaning of ‘Jiao’ is ‘wood fence’. Many scholars like Duan Yucai 段玉裁 argue that the original meaning is ‘pillory’, but it is a fallacy which have come from a misrepresentation of *Shuowen Jiezi* 說文解字; second, the original explanation of the word in *Shuowen Jiezi* might be ‘crossed wood’; third, the meaning of ‘textual criticism’ is a borrowing signification.

Key Words : 校(Jiao), 나무 울타리(wood fence), 木枷(pillory), 說文解字 (Shuowen Jiezi), 以木相貫穿(crossed wood), 校勘(textual criticism), 假借義(borrowing signification)

